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지난 8일 원로의원 고산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신흥사 · 월정사 · 불국사 · 쌍계사 · 금산사 · 송광사에서

‘결사 함성’ 명산대찰을 흔들다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6개교구본사서 개최

“자성과 쇄신으로 한국불교 되살리자” 다짐

전국 명산명찰에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를 비롯한 월정사, 불국사, 금산사 쌍계사, 송광사 등 전국의 6개 교구 본사는 지난 7, 8일 양일간 본말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봉행했다.

▶관련 화보 5면

지난 8일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성조스님)는 사부대중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쌍계사 대웅전 일대에서 ‘민족통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제13교구

본말사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쌍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작된 결의대회는 13교구위원장 성조스님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성조스님은 대회를 통해 “빠속해 사부처는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 어찌 코끝을 찌르는 매화향기를 느낄 수 있겠나”며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결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빠속 깊이 파고드는 아픔이겠지만 이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한국불교의 자존과 존엄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쌍계사 결의대회에는 원로의원 고산스님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36년간 이 곳 쌍계사에서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도량불사를 원만하게 수행하신 조실스님은 나무 한 뿌리 기와 한 장 꽃씨 하나도 자연과 생명의 순리를 따르신 훌륭한 분”이라며 “불교계만이 아닌 국민의 문화유산이 온전히 지켜지는 날까지 인식전환을 위한 대결사는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과제”라고 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예고에 없던 대중들을 향해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제안했고, 이에 답한 한 불자에게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서울 성지순례” 전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날 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도 포교원장 혜충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000여명이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7일 하루동안 불국사와 송광사, 금산사, 신흥사도 일제히 민

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봉행했다. 불국사(주지 성타스님)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실천지침 5개항을 선언했다.

이어 8일에는 월정사(주지 정념스님)가 민족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사부대중결의대회를 적광전 앞에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부처님의 법다운 삶으로 돌아가 정제성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수호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자”며 참석대중에게 발원 정진을 당부했다.

신흥사(주지 우송스님)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법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오늘 이 결의대회에 일로매진할 것을 발원한다”고 밝혔다. 송광사와 금산사도 각각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대 결사 실천을 통해 사부대중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결의했다.

지방문화원

부산 연등축제 봉행위원회 슬로건 확정 4면

다육식물로 집안·사무실 분위기 바꾸자 7면

조계종 전법단 출범 1주년

29일 기념식 개최

포교역량을 계승·지역별로 집중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불교조계종전법단(총재 혜충스님·포교원장)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관련기사 14면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법단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 혜충스님과 단장 계성스님(포교부장)을 비롯해 산하 전법단장과 지도법사, 전법후원단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불교신문 캠페인

재적사찰에 ‘자성과 쇄신’의 등을 밝히시다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의미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될 것 같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진행돼온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재적하고 있는 사찰에는 물론이고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비의 연등을 달아 세상을 밝히시다.

- 수행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히시다

그동안 우리는 스님들의 수행공간 마련을 위한 불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요, 불사라고 하면 의례히 주지 스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라 인식하고 불사동참에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올해부터는 우리 불자들의 힘으로 수행자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심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등불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 생명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히시다

이웃에 무수히 희생되는 생명들을 보고 연민과 자비심을 내어 야 하겠습니까. 올해는 특히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에서도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희생된 유주·무주 고혼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시다.

- 평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히시다

지구라는 같은 태양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언제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족간 싸움과 국가간에

전쟁을 하며 서로 중오심을 쌓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게 하는 발원을 하는 평화의 연등을 밝히시다.

- 문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히시다

우리 민족문화가 홀대받는 시대에 모든 이들이 우리 것에 소중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문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히시다. 그동안 우리는 남을 탓하면서 소중한 우리문화를 지켜나가려는데 소홀하지 않았는지요, 정부를 탓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우리 불자 스스로 불교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려는 발원을 세우는 연등을 밝히시다.

- 나눔결사를 위한 연등을 밝히시다

혹여 우리 옆에서 소외받으며 어렵게 사는 이웃을 보살피는데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결손·조손가정의 아이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못본척 눈을 돌리지는 않았는지요. 조그마한 정성의 손길을 뻗으면 어려운 이웃은 우리와 같이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자비의 등을 밝히시다.

“네 바퀴에 佛心 담아 달려요”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⑥ 윤불련 전주지역회

불기2555년 봉축행사를 앞두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아로 새기며 네 바퀴에 불심을 담은 사람들이 있다. 지난 5일 오후3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흥 가스충전소 내 위치한 한 사무실. 이곳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등행렬에 쓰일 장엄물을 제작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사무실에서는 한국 윤전기사불자연합회 전주지역회(회장 이우철, 이하 윤불련 전주지역회) 회원들 4명이 제등행렬을 위한 장엄물을 만들고 있었다. 한창 영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봉축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들의 이마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윤불련 전주지역회 초대회장인 강인대 씨가 장엄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마디 건넸다. 전주지역의 제등행렬은 오는 5월7일 열린다. 전주시청 오거리를 출발해 영회의 거리, 객사, 전주시청 오거리까지 돌아오는 왕복 2km 거리



지난 5일 윤불련 전주지역회 회원들이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에 사용될 장엄물을 제작하며 파이팅 하는 모습.

장엄물 제작 ‘구슬땀’ LED 전광판으로 장식

다. 제등행렬에서 윤불련 회원들이 펼치는 거리행렬이 전주 시가지를 수놓을 전망이다.

박기석 총무는 “회원들이 3월 초부터 제등행렬에 사용할 장엄물 제작을 위해 휴일도 남반한 봉축행사를 준비해 왔다”면서 “올해 제등행렬은 특별히 LED 전광판을 차량의 선두차량에 부착해 시각적으로 화려함을 연출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올해 차량에 부착되는 장엄물은 모두 8가지로 화려함이 돋보

이는 대동 4개와 LED전광판 1개가 5대의 차량에 장식될 예정이다.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각각 1분씩이 3대의 차량에 모셔진다. 특히 올해는 석가모니불 뒤에 탕화를 설치하고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상에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이 더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풍성함과 안정감을 강조했다.

전북봉축위원회는 5월7일 오후 3시 문화체험광장을 시작으로 전주 시청 노송광장에서 대법회를 연다. 또한 비빔밥 큰잔치, 축하공연, 봉축대법회, 제등행진 및 거리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지사=진재훈 기자



불자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재향군인회 100% 출자상조

무료상담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080-888-5000

경제적인 상조

장례비용이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시사항 1.종도해원금급 및 환급기준 가. 표준원금 제15조 제 규정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3개월 후 해지시납입금액의 100% 환급 2.보사자 분쟁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품품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조소에서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대마 100%(중국산) * 원단의 제조 방법 및 제조지역 수제직(국내산)등 나. 권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시:오동 나무(중국산) 3~4.5cm * 화장시:오동 나무(중국산) 1.8~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거리 * 차량의 종류 - 운구리무잔 린컨캐딜락(2006년 이상) - 정익버스:현대 기아(2006년 이상) * 주차비용:상설별 기본 무료제공 이외 거리 주차시 10km당 운구비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공지역 및 행사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유미 추가시: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7월임)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 (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회원자수 19,965,615천원 총 고액 합금의무액 15,400,603천원(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회림회계법인) 5.고액합금금의 관리방법 고액합금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